

Candy Smith 집사님 내외분께,

Angel Wingsmile 자선 선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요즘 경제사정의 악화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밝게 하려는 귀한 뜻에서 선교회를 창립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처럼 세상을 점점 밝게 하고, 작은 산불이 점점 퍼지듯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내외도 아름다운 정신이 확산되는데 Seed Money가 되기를 바라면서 적지만 후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김수명 목사 드림